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 인쇄하기 + 다운로드

# 쎄트렉아이,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603만원 기탁

(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뉴스일자: 2016년01월18일 23시34분

김병진 쎄트렉아이 대표가 18일 사옥 대표실에서 박종덕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상임이사에게 603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유성구청)

쎄트렉아이(대표 김병진)는 18일 사옥 대표실에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에 603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탁 받은 후원금은 쎄트렉아이가 지난해 12월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한 기부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관내 저소득가정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쎄트렉아이는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위성제작·개발 회사로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이웃돕기 행사에 지속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asia9210@naver.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이뉴스투데이



# 쎄트렉아이,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 200여명 직원들과 함께 한 기부바자회 수익금 전액 603만원 기탁 '훈훈'

박희송 기자 승인 2016.01.18 22:41

18일 쎄트렉아이가 사옥 대표실에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603만원의 후원금을 지정기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병진 쎄트렉아이 대표, 박종덕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상임이사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유성구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중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 유성구는 18일 쎄트렉아이(대표 김병진)가 사옥 대표실에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에 603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후원금은 쎄트렉아이가 지난 해 12월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한 기부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관내 저소득가정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쎄트렉아이는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위성제작·개발 회사로,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이웃돕기 행사에 지속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송 기자 heesking@daum.net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투데이 2016년 01월 19일 화요일

지역 04면

# 쎄트렉아이 후원금 603만원 기탁

18일 쎄트렉아이(대표 김병진)는 사옥 대표실에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에 603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탁 받은 후원금은 쎄트렉아이가 지난 해 12월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한 기부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관내 저소득가정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쎄트렉아이는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위성제작?개발 회사로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이웃돕기 행사에 지속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9.8*11.7)cm

중앙매일 2016년 01월 19일 화요일

종합 04면

## 쎄트렉아이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603만원 기탁

18일 쎄트렉아이(대표 김병진)는 사옥 대표실에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에 603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탁 받은 후원금은 쎄트렉아이가 지난 해 12월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한 기부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관내 저소득가정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노경래 기자

(12.1*9.4)cm

충청신문 2016년 01월 19일 화요일

인물 23면

## 쎄트렉아이,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603만원 기탁

18일 쎄트렉아이(대표 김병진)는 사옥 대표실에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에 603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탁 받은 후원금은 쎄트렉아이가 지난 해 12월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한 기부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쎄트렉아이는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위성제작 · 개발 회사로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이웃돕기 행사에 지속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석 기자
news25@dailycc.net

(19.4*7.7)cm

중도일보 2016년 01월 19일 화요일

종합 02면

# '용산동 아웃렛' 대전시-현대 물밑협상

### '용지목적 위배' 논란 해소 논의
### 사업계획 변경안 입장차 커 진통
### 시, 숙박시설 포함 등 원칙 마련

〈속보〉=대전 유성구 용산동 아웃렛 사업과 관련, 대전시와 현대백화점 측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광휴양시설용지의 내용 측면에서 양 측의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을 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대백화점 측은 용산동 아웃렛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 대전시 실무담당부서와 협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 측은 사업 제안서 반려 이후 새롭게 개발계획을 작성했고, 지구단위계획 개발방향에 맞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별 배치계획도 새롭게 만들었다.

현대 측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프리미엄 아웃렛과 여가·가족휴양시설, 주민편의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꾸며졌다. 현대 측은 또 지역 중소상인 및 지역상생방안, 고용창출,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대전시와 어느 정도 협의한 부분은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안은 초안 수준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단계이고 언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런 현대 측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기존 쇼핑시설 위주에서 문화·체험시설이 보강되긴 했으나, 시가 생각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이 제외돼 있었기 때문.

시는 용산동 아웃렛 사업과 관련,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관광휴양시설용지에 부합하도록 업무지원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 또한 숙박시설과 컨벤션기능이 포함돼야 한다고 원칙을 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대 측과 협상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방안 ▲지역사회 기여방안 ▲현지 법인화 ▲지역주민 고용 ▲지역사회 환원 방안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에 대한 안건을 관철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현대 측으로부터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18.1*12.5)cm